

건축마당

해외잡지동향
overseas journal

Architectural Record

Dom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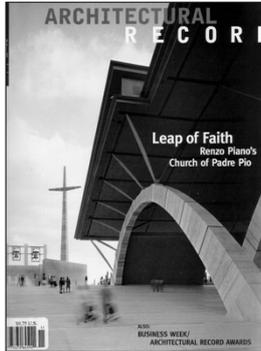
신건축

a+u

Architectural Record

2004년 11월

최근 완공된 주목할 만한 건축작품으로는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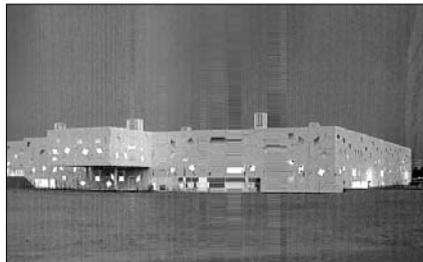


이탈리아 Pietrelcina Padre Pio 성당과 Kazuhiro Kojima + Kazuko Akamatsu/C+A, Arata Isozaki & i-NET의 카타르 Liberal Arts and Science College를 소개하고 있다. 매월 건물타입별로 최근 경향을 살펴보는 코너에서는 집합주택을 주제로 근작들을 살펴보았다.

■ 근작소개

Kazuhiro Kojima + Kazuko Akamatsu /C+A, Arata Isozaki & i-NET의 카타르 Liberal Arts and Science College

다수의 일본 건축가들이 참여한 카타르의 이 대학 건물은 이중 입면조식을 취하고 있다. 유리 섬유로 강화된 콘크리트 패널로 구성된 바깥 입면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밤에는 기하학적 패턴을 따라 후면 조명이 들어옴으로써 인상적인 야경을 연출한다. 내부는 고정된 강의실과 사무실, 유동적인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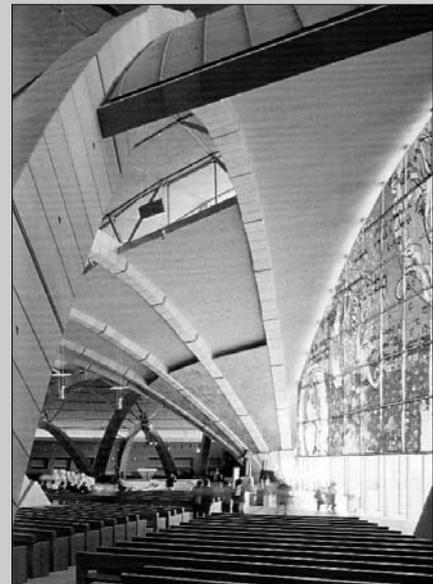
카타르 Liberal Arts and Science College

공간과 중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리 외벽과 철재로 된 스크린과 반사면들이 내부로 유입된 빛을 공간 전체에 전파시킨다.

그 외에 SMWM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Ferry Building,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의 이탈리아 Pietrelcina Padre Pio 성당을 소개하고 있다.

■ 건물타입별 연구 - 집합주택

도시인들이 대부분 거주하는 곳이 아파트지만 양질의 건축을 찾아보기 힘든 분야가 바로 아파트이기도 하다. 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지속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하는 다세대 주택은 여전히 '보통 건물'의 대명사가 된 박스형 건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개발업자들은 독창적인 디자인을 지향하며 도시의 모습을 바꿔가고 있다. 여전히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기존의 도시 조직 속에서 독특한 주거 환경을 구축한 집합주택의 예로 Archi-tectonics의 미국 뉴욕 Greenwich가 497번지, Public의 미국 캘리포니아 Laurel 아파트, Engelen Moore의 오스트레일리아 Barcom Avenue 138, Julie Snow Architects의 미국 미니애폴리스 Humboldt + Annex가 소개되어 있다.



이탈리아 Pietrelcina Padre Pio 성당

■ 조명

최신 조명 설계의 경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Suzanne Powadiuk Design의 미국 워싱턴 국립자연사박물관, Cosentini Lighting Design의 미국 뉴욕 Columbus Circle Equinox 헬스클럽, Virgile and Stone Associates의 독일 베를린 Radisson SAS Hotel이 소개되어 있다.

■ 기타

Bruce Mau의 Massive Change 전시회 소식, Lebbeus Woods의 전시회, 제9회 베니스 비엔날레 미국 파빌리온에 출품된 작품들에 대한 상세 소개, 제1회 베이징 건축 비엔날레 단신, 98세가 된 Philip Johnson의 건축계 은퇴 소식, Yoshio Taniguchi가 설계한 뉴욕현대미술관 증축계획의 완공 소식, 얼마전 세상을 떠난 Enric Miralles의 영국 에딘버러 스코틀랜드 의회 건물 완공 소식, 뉴욕의 세계무역회관 Freedom Tower의 설계비를 놓고 벌어진 개발업자 Larry Silverstein과 마스터플랜 건축사 Daniel Libeskind의 법적 분쟁 합의 소식, Building the Cold War: Hilton International Hotels and Modern Architecture 등 신간 소개, 제8회 Business Week/Architectural Record상 수상작 소개 등을 게재하고 있다.

Dom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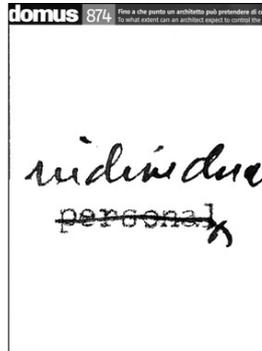
2004년 10월

■ 근작소개

Toyo Ito의 마츠모토 공연극장

도시의 구시가지 중심에 위치하며, 마츠모토 역

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면은 주거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서측으로는 도시의 주도로가 지나가며 남측으로는 신사가 인접해 있다. 길쭉한 대지의 형태는 건축사로 하여금 일반적인 극장의 레이아웃을 다시 구성하게끔 만들었다. 그 결과로 도시의 랜드스케이프를 가늘게 잘라내는 배아와 같은 형태가 생성되었다. 이토는 이렇듯 분명한 사이트적 상황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평면적 구성을 풀어내었다. 외벽의 곡면은 극장의 말굽 형태의 객석 배치를 따라 형성되었다. 기본적인 평면의 조직은 진입 계단과 포이어의 흐름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마치 바로크적인 공간 계획처럼 '진입의 드라마'를 강조한다. 극장을 감싸고 연결하는 자궁과 같은 공간은 'tabula rasa'의 평평한 판으로 이루어졌다. 이토는 위계로부터 자유로운 평평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길고 부드러운 곡선의 계단을 지나면 방문객은 'Thea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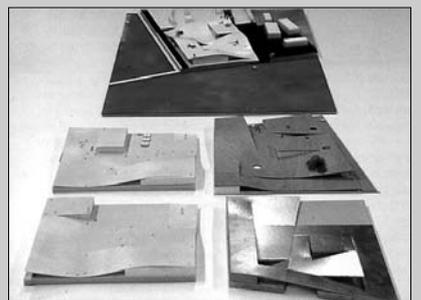
마츠모토 공연극장

Park'에 이르게 된다. 자연채광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이 공간에는 거품과 같이 생긴 의자가 비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PLOT의 코펜하겐 Maritime Youth House

코펜하겐의 새로운 Maritime Youth House는 Bjarke Ingels와 Julien de Smedt에 의해 디자인되었다. 이 건물은 9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수상한 젊은 덴마크 건축그룹 PLOT의 재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PLOT은 2001년 1월 코펜하겐에서 시작되었다. 14명의 건축가 그룹으로 구성되었으며, 특정 프로젝트에 따라 프리랜스 건축사들이 더 참여 하기도 한다. 지역내의 건축사 뿐 아니라 국제적인 범위에서 건축사들이 프로젝트에 따라 참여하며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도 주제에 따라 팀을 이룬다. 건축의 전통적 범주를 넘어서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습관적인 건축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낸다.

형태에 있어서는 덴마크 영화계에서 선언하였던 도그마와 같이 매우 단순하다. 특성의 복합성과 깊이를 강도 깊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Maritime Youth House는 코펜하겐 항구에 위치한다. 이 곳은 금속에 대한 토양의 오염이 심한 곳이었으며, 공해를 피하기 위해 보트를 보관할 창고와 그와 동시에 비행 청소년의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시립 센터를 필요로 했다. PLOT은 두 프로그램을 담을 건물을 위해 목재로 땅을 덮는 작업을 하였다. 목재 데크는 위로 솟았다 가라앉아서 자연스럽게 보트와 아이들의 쉼터를 형성한다. 각각 서로 다른 주제로 작업하는 방식은 열린 디자인을 가능케 한다. 이



코펜하겐 Maritime Youth House

러한 긴장은 PLOT의 디자인 특징을 잘 보여준다. 모순되는 요구들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지에 예기치 못했던 상황을 만들어낸다. 상상, 참조, 일대일 대응 등은 그들의 작업에서 금기시된다. OMA에서 이전에 작업했듯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보들을 수집, 시각화하고 재조합한다. MVRDV, Periperique와 같은 많은 사무실들도 데이터와 이미지들을 선택하고 조합하여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 다른 사고들을 실험하는 모델을 이용하는 다원적인 과정을 거친다. 그들은 미적인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도록 전개시키는 것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structure)를 가진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정의한다.

■ 기타

1996년, 2000년 베니스 비엔날레 디렉터였던 Massimiliano Fuksas와 Hans Hollein과의 인터뷰, 2004 Lille European Capital of Culture에 Droog Design이 소개한 작품들로서 자연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예술가의 복합과 접류를 강조한 작품 특집을 다루고 있다. (번역 / 최원준)

신건축

11월호

이번 호에는 그간 세지마 카즈요와 니시자와 류에이(SANAA)의 대표적 계획안이었던 카나자와21세기 미술관이



완공되면서 이에 대한 기사가 비중 있게 다루어

졌다. 또한 안도타다오가 설계를 맡아 페트병을 주 재료로 사용한 무대장치인 오페라 알반 베르크 '보체크(Wozzeck)'의 무대디자인 그리고 1929년 완공된 코준빌딩의 새로운 복원 증축도 매우 흥미로운 기사이다.

카나자와(金沢)21세기 미술관

카나자와21세기미술관이 지난 9월 완공되었다. 이로서 카지마 세즈요(妹島和世)와 니시자와 류에이(西沢立衛)가 이끄는 SANAA는 자신들의 아카이브에 새로운 대표작 하나를 추가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컨셉의 이 미술관에는 건축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미술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서로다른 비례와 볼륨을 갖는 여러개의 백색 입방체들이 원형의 투명 울타리로 한데 묶인 형상을 한 이 미술관은 그 이름에 걸맞게 21세기를 지향한 새로운 미술관의 컨셉을 보여주려는 시도를 다수 내포하고 있다.

많은 수의 일본 미술관이 안고 있는 문제는 관객 수의 감소이다. 최근 10년간에 일본 전국의 미술관, 박물관의 입장자 수는 1000만 명이 감소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미술관이 계몽의 시설로서 작품을 일방적으로 하나의 오브젝트로서 내보였던 공간의 방법이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

것이며, 이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스미디어로부터의 정보, 개인적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각 정보나 스펙터클의 증가는 이와 같은 현상을 나타나게 한 원인의 하나이기도 하나, 무엇보다도 미술관 공간이 갖는 권위성과 작품의 보존이라는 명목하에 외부로부터 단절된 폐쇄성이 관객의 발길을 끊게 만든 원인일 것이다.

'카나자와21세기미술관'을 21세기 미술관의 하나의 공간모델로서 제안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미술관 컨셉의 신선함과 컨셉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건축사, 미술관의 스태프, 아티스트가 삼위일체가 되어 토론을 지속해 온 점 때문일 것이다. 건축설계를 맡은 SANAA는 클라이언트의 컨셉을 미술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에 맞추어가며 검증하였으며, 엄밀한 스테디를 수행했다. 이와 같은 피드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양방의 이해를 조정하였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건축사와 미술관측 모두는 '사물'이 아니라 '사건' 및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시간풍경'을 어떻게 아름답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PLATFORM(1988년)' 이래 SANAA가 사람들의 움직임을 외관 디자인의 중



카나자와(金沢)21세기 미술관



카나자와(金沢)21세기 미술관

요한 요소로 생각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카나자와21세기미술관은 3M(Man:개인주의, Money:자본주의, Materialism:물질주의)으로부터 3C(Coexistence:공존, Collective Intelligence:공유지식, Conscience:의식)로의 이행을 컨셉의 골격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는 양방향적인 참가, 공동의 창조라는 가치관이 스며 있다.

각 방이 자립해 있으며, 서로 다른 비례를 가진 미술관은 독일의 인텔 혼브로이히 미술관(이것은 야외에 점재(點在)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에서 볼 수 있으나, 하나의 건물 안에 이와 같은 배치를 취한 예는 아마 없을 것이다. 이것은 소리나 향기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작품들의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그룹전의 경우 한 작품의 인상이 다음 작품에 영향을 미려 기억이나 인상이 과도하게 오염되지 않도록 감상자의 명확한 시각체험을 지켜나가는 역할도 수행한다. 자연광과 인공광의 공존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일정한 조도가 유지되는 공간은 외부 광선의 변화를 실내에 반영하면서도 조도를 유지한다는, 자연과 인텔리전스의 융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디어 아트 등의 버츄얼한 영상과 음향공간에 있어서도 종래의 미디어랩 등에 흔히 사용되었던 중장비를 갖춘 다크룸(블랙박스)의 형식을 피했다. 영화관적인 다크룸은 아무래도 20세기적인 것이다. 휘도가 높은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화이트 큐브(자연광이 들어옴)의 백색 벽면에 영상을 비추도록 하였다. 기술적으로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우리들의 피지컬한 신체감각과 정보화된 버츄얼한 신체감각을 단절하는 일 없이 공존시키려는 시도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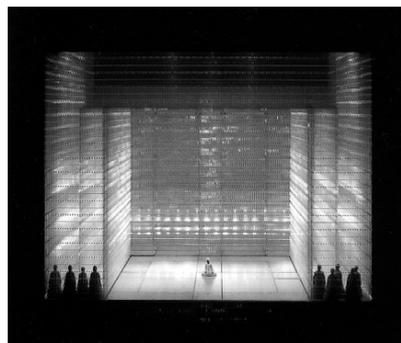
자연의 변화와 테크놀러지에 의한 오퍼레이션 중첩시키면서 실내는 가능한 한 미니멀하게 하였으며, 건물전체 혹은 공간전체가 작품을 담아내는 백색의 팔레트화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실내의 볼륨의 다양성을 통해 표현의 배리에이션에 대응한다는 것. 이것이 전시실의 요점인 것이다. 같은 이야기기 되겠으나, 투명한 레이어(외벽, 유리존과 무료존을 감싸고 있는 아크릴의

벽, 광정의 벽 등)는 관객이나 통행인들이 다른 사람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공존, 공동창조의 장(場)이라는 인식의 공유를 촉진시킨다. 디자인 측면에서의 주장이나 컨셉을 감소시키고 단지 필요한 것들만을 최소한도로 남김으로 인해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부각시키는 것. 감소하는 건축의 철학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개관 후 많은 사람들이 이 미술관의 빛에 대해서 놀라운 감상을 가졌다. 외부의 빛, 전실속의 빛, 그 안에서 빛어지는 빛의 다양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들 빛의 변화는 사람들의 내적, 심적 풍경을 비출 것이다. 모뉴멘탈한 조각 대신에 만남을 위해 만들어진 3개의 인터페이스(터렐(空), 카프(地), 에릿(水)의 경계면처럼 이들 모두는 매일 매일 바뀌어가는 우리들의 생활을 투영해내고 힘을 실어줄 장치인 것이다.

오페라 알반 베르크 '보체크(Wozzeck)'의 무대디자인 - 안도 타다오

빈(Wine)국립극장 음악감독이며 지휘자인 小澤征爾가 그의 스승인 故 齊藤秀雄을 기리며 매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 개최하는 음악회인 「사이토우 키넨 페스티벌(사이토우 기뎨 페스티벌)」은 금년 13회째를 맞았으며, 오페라의 주제로 선정된 것은 19세기 독일의 자연학자인 게오르크 뷔히너의 유고에 기반한 희곡에 빈의 작곡가 아르반 베르크가 작업한 '보체크'이다. 이 오페라의 연출은 현 베를린 국립극장 총감독인 피터 무스바흐가 맡았다. 정신과의사이면서 동양의 단(禪)사상에도 조예가 깊은 무스바흐는 일본에서의 공연에 '동서(東西)의 만남'을 의식했다고 한



오페라 알반 베르크 '보체크(Wozzeck)'의 무대디자인 - 안도 타다오

다. 이와 같은 주제를 실현하는 하나의 실천으로서 안도 타다오에게 무대장치의 기획을 의뢰하게 된 것이다.

무스바흐의 연출은 시대, 국경을 넘는 추상화에 의해 완전한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철저한 추상화를 통하여 역으로 그 안에서 공연하는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의 인격 그리고 작은 장소성들이 보다 선명히 연출되고, 그 너머에 쌓여진 인간의 마음의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 연출무대에 무스바흐가 요구한 것은 순수한 큐브의 공간. 거기에 다른 세계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무한의 깊이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페트병 약 44,000개로 구성된 빛의 큐브를 제안하였다. 이 현대적인 소재감은 가시(可視)로부터 불가시(不可視)로, 거리에 따라 자유자재로 그 표정을 변화시키고, 빛에 따라 다양한 색채를 발하게 된다.

페트병의 벽은 두께 3mm의 아크릴 플레이트와 병의 캡으로 수평방향으로 구속된 유니트를 지름 2mm의 와이어로 달아냄으로써 완성되었다. 객석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기류에 의한 흔들림, 가동부의 정밀도, 음의 공명 등 오페라 무대장치로서 성립하기 위해 많은 유념사항이 있었으나 현지에서의 Mockup모형을 포함해 시공팀과 함께 실험을 반복해 가면서 만들어갔다. 이 작업을 의뢰받았던 그 순간 이래로 안도 타다오는 빛과 공기만으로 구성된 듯한 추상도 높은 공간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다. 그 이미지를 어떠한 소재로 구현해 낼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이 작년 여름 田中一光展의 최장 구성에 사용한 페트병이었다. 그 스케일감, 빛의 효과와 함께 오페라의 무대라는 비일상적 공간을 일상에서 흔해 빠진 베틀병으로 구성한다는 것 자체에 가능성을 느낀 것이다.

무스바흐는 이 빛의 큐브가 갖는 개성을 최대한 끌어내면서 의상, 조명, 장치를 포함한 전체를 긴장감 넘치는 구성으로 정리해 내는데 성공하였다. 시대, 문화의 차이를 초월한 추상적 표현 속에 인간의 나약함과 생명의 덧없음이 나타났고, 그것은 하나의 소우주와도 같은

것이였다.

코준(交詢)빌딩 - 시미즈(清水)건설 <코준빌딩 외관, 이축 복원된 실내>

1871년 시카고 대화재와 마찬가지로 1872년 에도 대화재는 가로의 모습을 근대도시 동경의 것으로 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긴자의 거리는 괴멸상태였고, 가로의 폭을 넓히는 사업과 가로변 건물들을 불연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때 영국인 기술자 T.J. 윌터스의 안내에 시구(市區)개정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긴자 연와가(煉瓦街)'가 완성되었다. 같은 시기 긴자에 거점을 정한 후쿠자와 류우키치(福澤諭吉)는 주재하는 신문사 근처에 친구인 화학자 宇都宮 三郎으로부터 연와가옥을 양도받아 초대 코준사(交詢社) 사옥으로 삼았다. 이리하여 1880년 일본 최초의 사교 클럽인 '코준사 구락부'가 탄생하였다.

그 후 약 반세기 동경은 1923년의 관동대지진에 의해 다시 잿더미로 변했고, 코준사 사옥도 이와 같은 신세를 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코준사는 창립 50주년을 기해 부지를 확장하고 지상 7층 규모의 제 2대 사옥을 1929년에 건설하였다. 설계는 横河時介에 의해 이루어졌다. 주목할 점은 구락부에 더하여 점포나 사무소 기능이 추가되었고, 운영상에 있어서도 독립자존하는 업무빌딩이었다는 점이다. 기술적으로도 동시기에 미국건설회사와 시미즈건설이 공동으로 건설한 미쓰이(三井)본관에 사용된 최신공법을 채용하였



이축 복원된 실내

으며, 나아가 일본 독자의 내진구조인 '철골철근 콘크리트' 조를 시험적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근대 構工法을 최대한 구사한 것이였다.

그러나 한편에선 時介는 미스가 설계한 프리드리히의 초고층계획을 보기는 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당초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다. 時介는 1922년까지 미국의 코넬대학에 유학하여 1924년부터 설계를 개시하였다. 미스는 1919년 이래 1919년까지 연속적으로 초고층빌딩 구상안을 발표하였으며, 독일에서 막 제폭화된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모형 '유리의 마천루'의 충격이 선진적인 코넬대학에 미쳐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금세기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구조보강이라는 범위를 넘어서 문제를 갖게 된 이 건물에는 '형태만의 보존' 이상의 해결책이 요구되었다. 행정청측에서도 용적률이나 높이의 완화에 더하여 역사적 건조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비하였다. 그 어느 시대나 건축물은 그 시대를 표현한다. 컨셉으로서 추구된 것은 건전하게 자립하여 존속하는 것이였다. 단순히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있는' 건축, 즉 지금의 시대에 걸 맞는 기능을 가진 채 존속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많은 전략과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하며 현실사회에 해결책을 제공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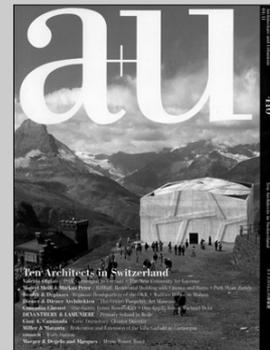
코준빌딩 외관

않으면 안 되었다. 설계에 있어서 완공된지 70년이 넘는 코준빌딩을 관찰하고 빛나는 오센티티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 이 건물을 성립시킨 당시의 모더니즘의 모체상에 존재하는 무수한 기호를 읽어내고 재구축하도록 하였다. 외부에서는 정면벽체의 현물 보존, 스테인드글라스창의 복원, 내부에서는 튜더 아치나 문장(紋章) 조각과 같은 요소들이 풍부한 담화실, 중정, 소식당의 이축 보존이 결정되었다. 단순히 사물로서의 보존을 목표로하지 않고 기존 건축물의 골격이자 정신적 축이었던 것을 계승하고 싶었던 것이다. 신축부와 보존부, 각각의 존엄성을 지켜가는 속에서 만들어지는 신·구의 대비는 융합과 동화의 모습으로 승화하길 바랐다.

atu

11월호

이번 특집은 '스위스의 10인의 건축사'이다. 소개된 10인의 스위스 건축사들은 발레리오 올지아티



(Valerio Olgiati), 마르셀 마일리, 마커스 피터 아키텍텐 (Marcel Meili, Markus Peter Architekten) 등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건축사들이지만 진중한 스위스 건축의 특징을 잘 간직한 이들도이다. 10인의 작품소개와 함께 오늘날 스위스 건축에 대한 에세이로 아코스 모라반스키(Akos Moravanszky)의 '스위스박스 에세트리(Swissboxes etcetera)'가 게재되었다.

현대 스위스 건축사 10인

10인에 선정된 건축사는 발레리오 올지아티, 마르셀 마일리, 마커스 피터 아키텍텐, 베이스 &

데플라즈 아키텍텐(Bearth & Deplazes Architekten), 디에너(Diener) & 디에너 아키텍텐, 콘라딘 클라보(Conradin Clavuot), 드반테리 & 라무니에 (DEVVANTHERY & LAMUNIERE), 기온 A. 카미나다(Gion A. Caminada), 밀러 & 마란타(Miller & Maranta), smarch, 모르거 & 데겔 앤 마케스 (Morger & Degelo and Marques)이다. 소개된 이들의 작품들은 전시장, 집합주택, 호텔, 대학시설, 미술관, 주택, 초등학교, 역, 오피스빌딩 등 다양하지만 smarch의 볼프(Worb)역(驛)을 제외하고는 모두 심플한 '스위스박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에세이: 스위스박스 이세트라

현대 스위스 건축은 국제적인 성공을 이루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나 디컨스트럭티비스티즘의 유명 건축사의 작품들과는 달리 스위스에서 태어나 자란 건축사에 의한 수작(秀作)들은 '스위스 박스'라고 불릴 정도로 심플한 건물들이다. 견실하면서 진지하고, 값비싼 건축인 그것들은, 전체적인 심플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첫 눈에 스위스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스위스박스의 비밀은 무엇일까. 해외로부터 스위스로 건너온 사람



마르셀 마일리, 마커스 피터 아키텍텐의 RiffRaff: 영화관, 비스트로가 있는 집합주택

들은 매우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 건축이라는 인상을 받으며, 무엇보다도 남에게 전혀 피해를 줄 것 같지 않은 건축이라는 느낌을 받는다(취리히 경찰의 새로운 모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만 허락 한다'이다). 스위스의 건축 속에서 대표적인 작품을 찾아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오스트리아 빈(Wine)에서는 아돌프 로스, 한스 홀라인, 코프 힘멜브라우 등에 의한 아름다운 작품들 안에서 근대로부터 포스트모더니에 이르는 건축의 모든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반과는 달리 스위스에서는 그와 같은 작품들은 감추어져 있다. 피터 존너는 유명한 건축사이지만 취리히의 반 호프가(街)에 건물을 세우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의 사무소(아플리에 존너)는 쿠르(Chur) 근교의 할덴스타인(Haldenstein)의 작은 목조주택 속에 있으며, 그의 건물 대부분은 알프스 산간 그리손스(Grisons)에 있다. 스위스의 건축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우리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의 랜드스케이프를 돌아보고, 시간을 거슬러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취리히와 모던 트래디션

고전적 근대(Classical Modern)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인 돌데르탈(Doldertal) 하우스(마르셀 브로이어, 에밀 로스 1935)와 뉴뵐(Neubühl) 집합주택(아르타리아 & 슈미트 외, 1930~1932)은 취리히에 세워져 있다. 스위스에서 건축사들은 이들 고전적 근대의 대표작을 시대의 산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친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유산으로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해 스위스의 근대양식은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정



드반테리 & 라무니에의 롤(Role)의 초등학교

복되는 일은 없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몇 개의 선언문들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에서는 사회적인 이상을 품은 영웅적인 이방가르드는 없었다. 중요한 하우징 프로젝트의 건축사로서 정치에도 열의를 나타내었던 한스 베르누이는 자유경제의 교육에 관여한 일로 인해 1939년 교직에서 해임되었다. 구상예술은 이방가르드로부터 사회적인 의미부여를 제거한 대체물이었다. 위험성이 없는 '착실한 형태' 속에 스위스의 사회적 컨센서스는 오랜 기간동안 지배되어 왔다. 따라서 거기에는 포스트모더니 빛을 발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 사각형에 색을 칠하는 것은 지금도 대중적인 오락이다. 최근에는 보다 새로운 스트리트 퍼레이드의 미의식을 통하여 진중히 계량된 자유가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플라스틱의 호피무늬의 표피나 건물 벽면의 낙서를 통하여 보다 세련된 테이스트(취미)로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것들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산에 넣어 둔 것으로서 의식적인 이탈행위에 그친다.

지금 현재 취리히는 활황을 누리고 있으며, 여기저기서 건물들이 새로이 지어지고 있다. 다운타운은 은행이나 부띠끄가 모이는 장소로 굳



베이스 & 데플라즈 아키텍텐의 말란(Malans)의 월터(Walther)주택

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다 확실성 있는 부지로서는 원래 공장지대였던 시가지의 서측 교외지역이 가장 인기 있는 곳이다. 기존 조선공장이 오토너 & 오토너 사무소에 의해 문화센터로 개축되었다. 다운타운으로부터는 나오지 않는 도회적인 감각(‘작은 대도시’는 수년 전부터 취리히를 선전하는 표어였다)은 기존 공장의 적지가 풍기는 애수 속에서 시물레이트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건축사들에게 취리히에서는 맞볼 수 없었던 실험의 장들을 제공하였으며, 건축사들은 작고 복잡한 것들을 다루어야 하는 도전을 받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앙철도역의 노선을 덮는 지붕(마르세이 마이리 & 마르크스 피터 + 제노 비겔, 1990~1999)이다. 산티아고 카라타라바에 의한 또 하나의 다운타운에 소재한 철도역, 종종 초현실주의의 전형으로 일컬어지는 슈테텔 호펜인 철도역(1983~1990) 등도 스타일의 견실성으로부터 해방된 엔지니어 아키텍처의 유기적인 아날로지를 강하게 나타낸다. 1995년, 일터와 공동의 거실 그리고 설비를 통합한 집합주택 ‘크라프트베르크 I’이 완성되었다. 다른 지방이나 해외에서의 스위스인 건축사의 성공에 힘입어 취리히는 건축이 구상예술의 단순한 종립적 배경이 아니라라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티치노적 타이폴로지

케이블카 그리고 여가를 위한 아파트와 함께 등장한 매스 투어리즘(mass tourism)을 통해 많은 영향력을 지닌 현대 스위스 건축사들은 국제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 외국인은 산과 산을 넘어다니는 위험을 감수하게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스위스 사람들의 바로 이웃에 이주해 살기 시작한 도시의 외교관이자 매력의 원천이 기도 했다. 티치노의 랜드스케이프에 대한 아스팔트화는 1960년대에 그 정점을 맞았다. 그 당시에는 ETH(취리히 스위스연방공과대학)를 갓 졸업한 루이지 스투치나 아우랄리오 갈페티 등의 건축사들이 최초의 일을 시작한 시기이다. 1970년 경에는 마리오 보타가 마리오 보타가 브루노 라이히리나 파비오 라이하르트와 함께

‘합리주의자’의 제 1세대를 구성하였다. 1972년에 도르프 슈네브리가 알도 로시를 2년간 객원 교수로서 ETH에 초빙하였다. 건축을 자율적인 전문영역으로 보는 신념은 알베르토 카멘친이나 파비오 라이하르트의 디자인 스튜디오의 근간이 되었다. 알프레도 로트는 그들이 파이오니어와 만났던 이야기들도 청중을 매료시키기는 했지만 기술적인 플래닝의 기능적 다이어그램이나 사회적 이념 속에서 리드해 가는 역할을 담당하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신념은 잃어버렸다.

건축의 자율성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테마이다. 그 출발점은 역사적인 도시의 연속성이었다. 그러나 형식의 과학인 타이폴로지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시그널 빌딩을 디자인 하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스위스 이외의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티치노파(派)’는 실제로 무엇인가를 가르쳐 전달하는 집단이라기 보다는 마케팅에 착안한 발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티치노에는 건축학 교가 있다. 마리오 보타에 의해 멘도리시오에 설립된 아키텍처 아카데미가 바로 그것이다. 보타는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질 높은 건축을 만들어 오면서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장이 담당해야 할 로 모델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번역 / 강상훈)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인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1-2410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충청남도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6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광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61)726-6877~8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군위, 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지역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